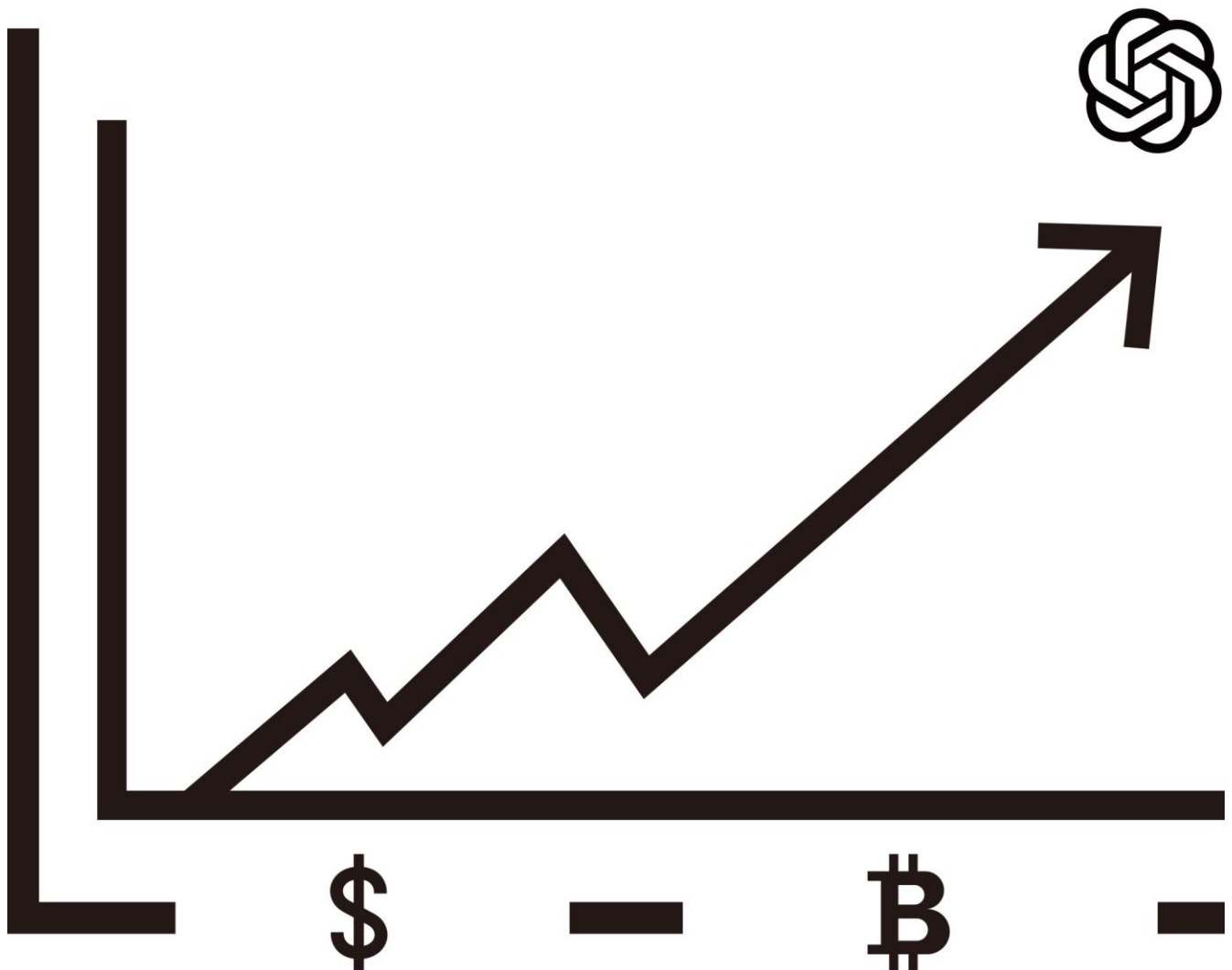


전략공감 2.0

Strategy Idea
와타나베 부인과 서학개미

오늘의 차트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초장기 국채 금리

칼럼의 재해석
드론 우위 확보 전략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FX/원자재

Economist 박수연

02. 6454-4897

soo-yeon.park@meritz.co.kr

와타나베 부인과 서학개미

- ✓ 관세 + 통화정책 + 재정건전성 불확실성 → 외환시장 수급장세
- ✓ 일본과 한국은 투자수지 적자국. 일본은 와타나베 부인, 한국은 서학개미 영향
- ✓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어도 투자수지가 적자라면 상승

주요 통화별 달러대비 YTD 수익률: BTC +23.9%, KRW +6.3%

2025년 외환시장 수익률:
암호화폐 > 유럽 통화 > 기타

올해 외환시장 수익률 상위권은 암호화폐(비트코인 YTD +23.9%)와 유럽 통화(SEK +14.4%, EUR +12.2%)였다. 원화 역시 달러대비 +6.3% 절상되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며 달러가치가 절하되다 보니(DXY -9.2%) 다른 통화들의 달러대비 통화가치가 절상되었기 때문이다.

원화 투자 매력도는 낮아 보임

상반기 약달러의 반작용으로 7월에는 달러 저가매수가 유입되며 글로벌 전반의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디파이 내러티브가 유효한 암호화폐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특히 달러/원은 1,390원대에 안착하며 어느새 1,4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는 DXY 하락폭보다 원화 절상폭이 작았고 7월의 DXY 상승폭보다 원화 절하폭이 크다는 점에서 원화 투자 매력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단기 추세 전환 시그널 X.
달러/원 1,400원대 복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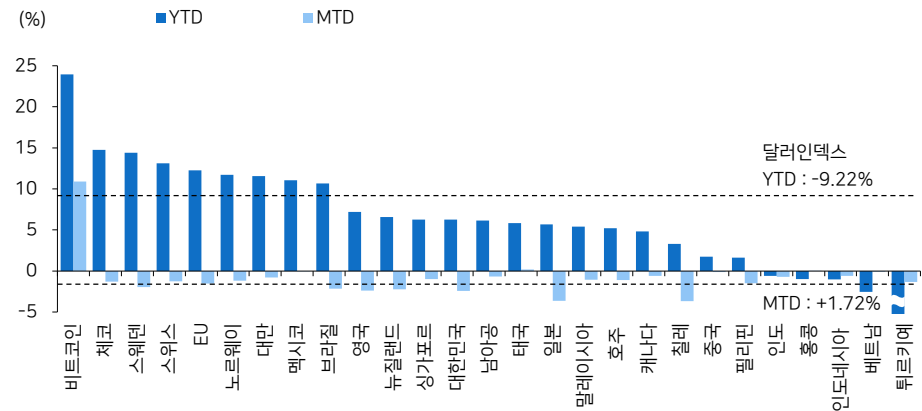
달러/원은 추세 전환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8월 내 1,400원대로의 복귀를 전망한다. 일반적으로 환율 추세가 반전될 때는 환율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지금은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DXY가 100을 하향돌파했기 때문에 여전히 저가매수 전략이 유효한 점, 연준이 매파적일 것이라는 시장 기대도 달러 반등을 지지한다. 같은 관점에서 비트코인 상승세도 이어지겠다.

중장기 강달러로 이어질지는
수급을 보고 판단

그러나 지금의 환율 반등이 중장기 강달러 재개로 이어질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환 수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세, 금리,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매크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매크로 측면의 환율 방향성 베팅은 어렵고 수급에 좌우되는 모습이 4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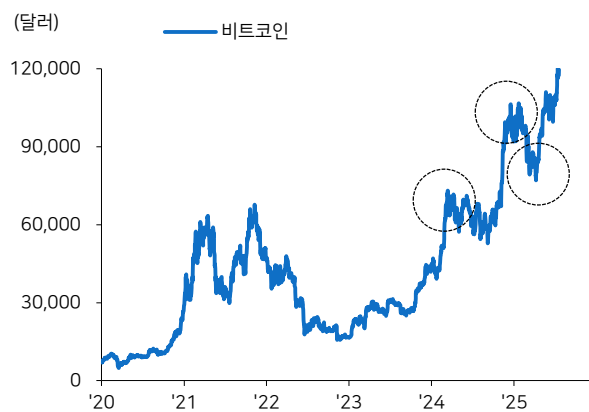
이에 이번 전략공감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의 중장기 외환 수급을 살펴보았다. 외환 수급은 크게 실물 측면의 경상수지와 금융 측면의 포트폴리오 투자로 나뉜다.

그림1 주요 통화별 달러대비 수익률: YTD vs. M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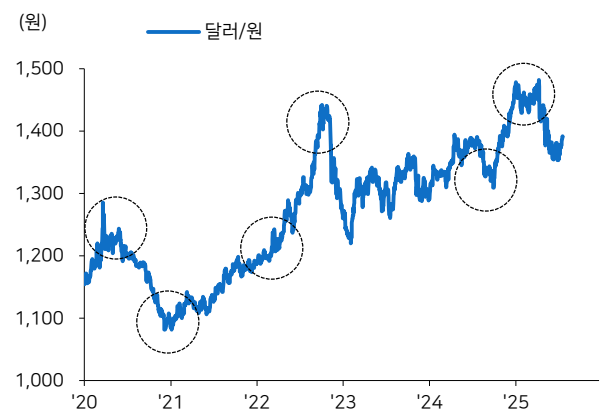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비트코인 가격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달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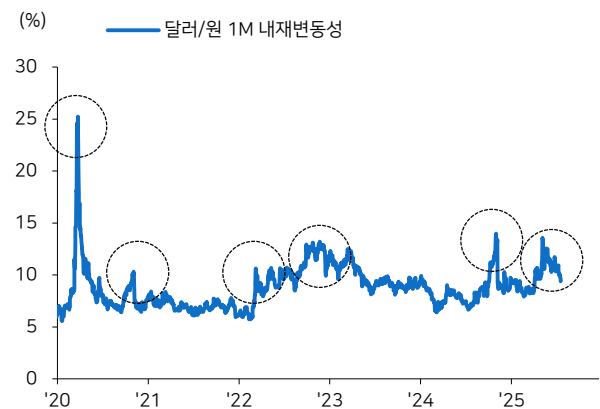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



자료: Tradingview,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달러/원 1M 내재변동성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경상수지 적자 + 투자수지 흑자(?)

미국 4월 투자수지 적자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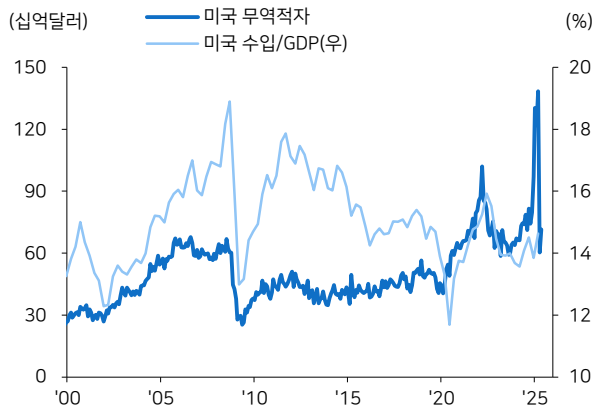
미국은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와 투자수지 흑자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이 투자수지를 일시에 적자로 전환시키면서 오래된 수급 구조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4월 해방의날 이후 주식과 채권 자금이 순유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관세 정책은 경상수지 흑자 전환을 목적으로 두나, 공급망 구조가 바뀌기까지는 장시간이 걸리며 미국의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아직 투자수지 적자 고착화X

물론 미국 투자수지는 5월에 흑자로 다시 전환되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수지 적자의 시작이라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 예외주의 내러티브가 소강하면서 나타난 변화라는 점, 그리고 미국 정부가 연준 의장을 압박하면서 신뢰를 추가적으로 훼손한다는 것이 문제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가 중앙은행을 압박하여 금리인하를 피하면 해당 통화 가치가 급격히 절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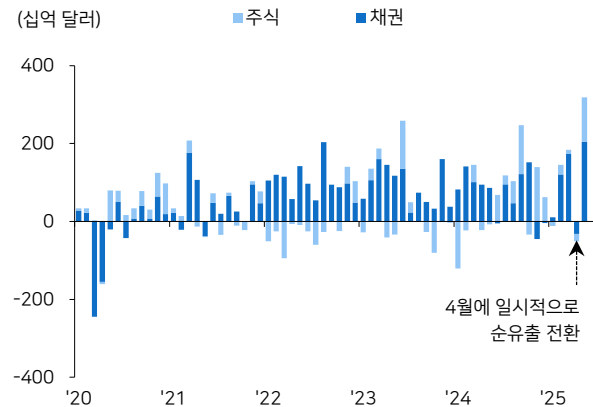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미국은 아직 투자수지 적자가 고착화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의 의심이 중장기 달러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6 미국 무역적자 vs. 수입/GDP



자료: U.S. Census Bureau, US BE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미국 월별 외국인 자금 유입: 주식 vs.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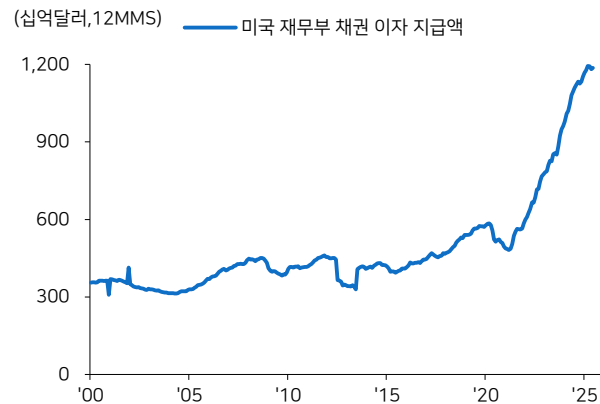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앙은행 총재 압박 사례 및 환율 변화

날짜	국가	통화가치 변화 (% YoY)
1994년 10월	러시아	-41.5
2001년 2월	헝가리	0.2
2010년 1월	아르헨티나	-4.5
2014년 2월	나이지리아	-13.4
2019년 7월	튀르키예	-17.5
2021년 3월	튀르키예	-47.6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미국 재무부 채권 이자 지급액



자료: US Bureau of the Fiscal Servic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일본] 와타나베 부인과 투자수지 적자 전환

일본은 와타나베 부인 때문에
투자수지 적자 고착화

반면, 일본은 수급 변화가 고착화된 국가다. 일명 '와타나베 부인'으로 불리는 일본의 엔 캐리 트레이드 개인 투자자들로 인해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며 투자수지가 적자로 전환한지 오래다.

일본 국내 투자 여건 악화
→ 고금리 통화 투자 유인 상승

와타나베 부인이 부각된 배경에는 일본 국내 투자 여건 악화와 해외 고수익 자산에 대한 관심 증가가 자리한다. 일본의 저성장은 1990년대의 버블 경제 붕괴와 디플레이션 시작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일본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금리를 0%까지 인하하면서 저금리에 엔화를 빌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금리가 낮아서 엔화 차입은 용이하나 저성장 때문에 일본 투자 수익률이 낮았다. 반면,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면 내외금리차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에 1998년 외환 자유화와 함께 엔 캐리 트레이드가 확대되었다.

달러/엔 5~10엔 상승 효과

물론 환율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단일 조건에 의해 달러/엔이 좌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BIS(2007)는 와타나베 부인의 캐리 트레이드가 달러 매수 쏠림을 야기했기 때문에 달러/엔을 최소 5~10엔 이상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되더라도 달러/엔 레벨이 높아진 이유다.

[한국] 서학개미와 투자수지 적자 전환

한국은 서학개미 때문에
투자수지 적자 고착화

한국은 미국보다는 일본과 비슷하다.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되지만 일명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해외주식 투자자가 늘어나며 투자수지 적자가 정착했기 때문이다.

2010년대 박스피 장기화
→ 해외주식 투자 유인 상승

와타나베 부인과 마찬가지로 서학개미가 부각된 배경에도 국내 투자 여건 악화가 자리한다. 2018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제외하고, 2010년대 내내 국내증시는 '박스피'에 갇혀있었다. 반면, S&P 500 지수와 NASDAQ 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했기 때문에 상대수익률은 더욱 높았다. 매크로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 잠재성장률은 낮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한국 국가 투자매력도는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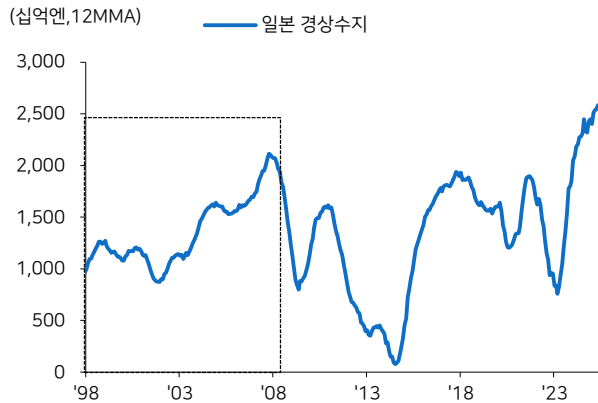
기업 외화예금이 버퍼로 작용
→ 경상수지의 환율 영향력 제한

게다가 기업들의 외화예금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증가하더라도 달러 매도가 지연되는 경향성이 커졌다. 즉, 외화예금이 버퍼로 기능하기 때문에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당장 시장에서 매도하지 않으면서 달러/원 하락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2025)은 2018년 이후 대외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했기 때문이라 분석한다.

요약하자면, 개인 해외투자가 늘어나며 투자수지 적자 구조가 정착한 한편, 기업들은 수출대금(달러) 매도를 지연시키면서 경상수지의 환율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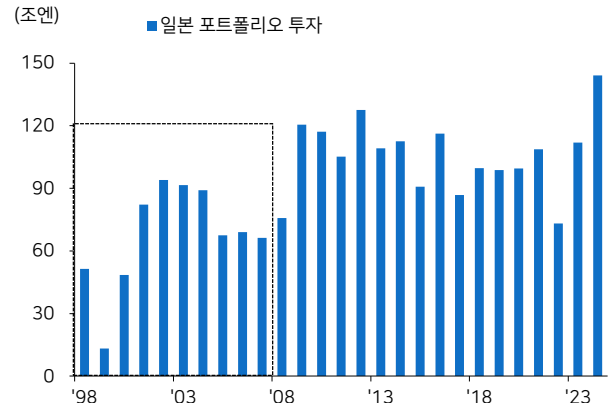
[일본] 1990년대 후반 와타나베 부인

그림9 일본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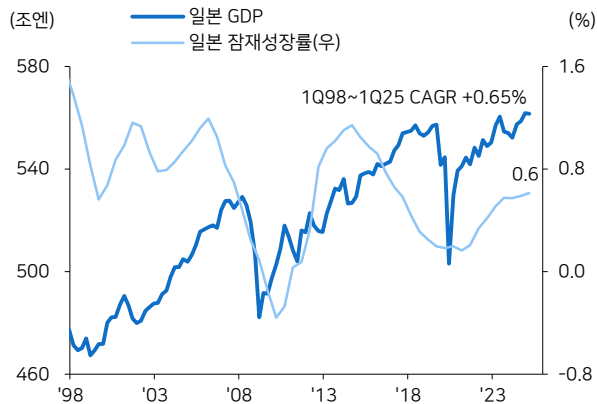
자료: 일본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일본 포트폴리오 투자



자료: 일본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일본 경제성장률 vs. 잠재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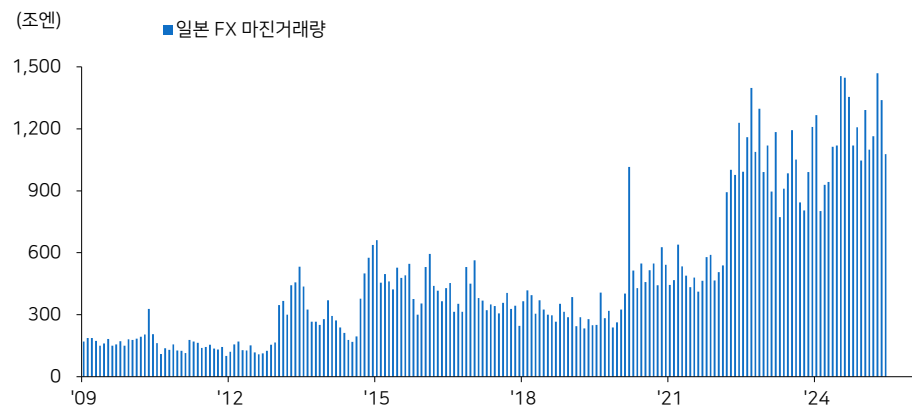
자료: 일본 ESRI, 일본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일본 10년 vs. 미국 10년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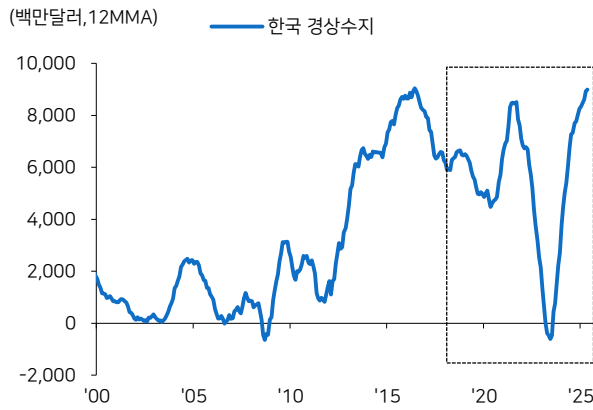
그림13 일본 FX 마진거래량



자료: The Financial Futures Association of Japa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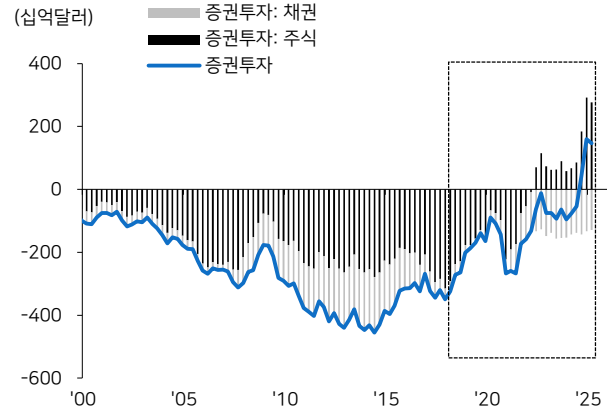
[한국] 2020년대 서학개미

그림14 한국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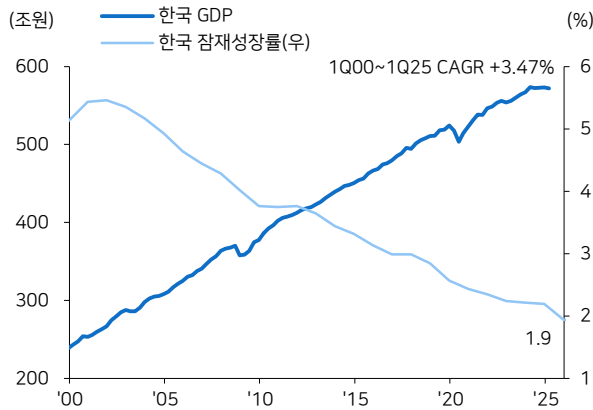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한국 포트폴리오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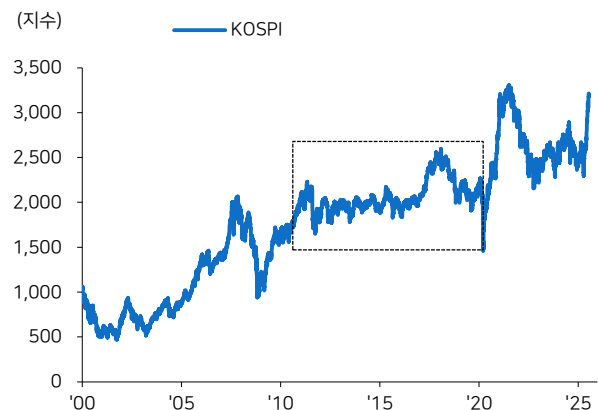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한국 경제성장률 vs. 잠재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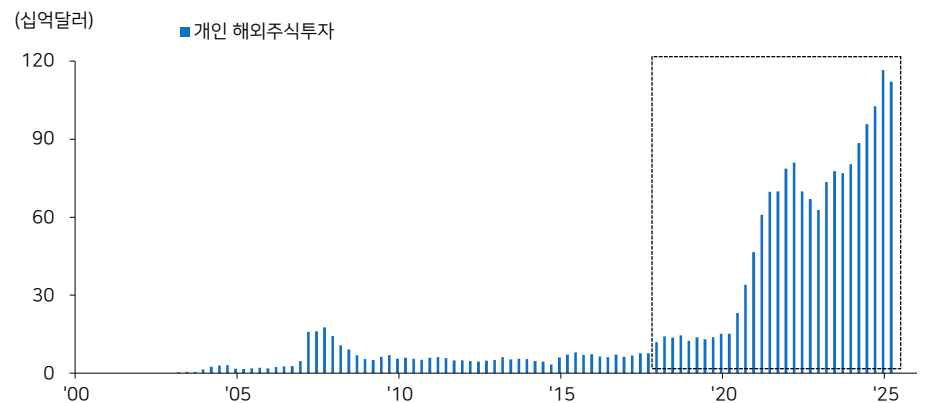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OEC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KOSPI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한국 개인 해외주식투자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환율 영향력은 경상수지 < 투자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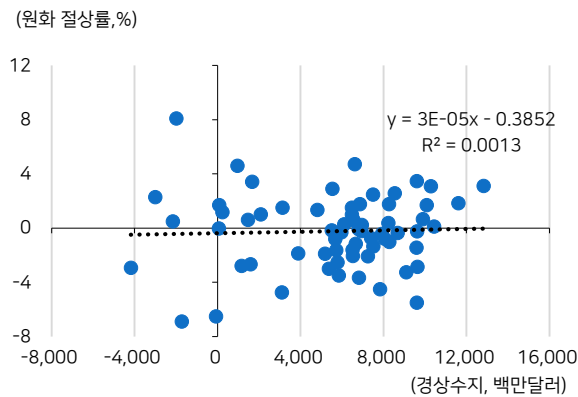
환율은 투자수지가 좌우

상기한 논의를 종합하면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1H25의 약달러는 미국 투자자금이 순유출로 일시에 전환되면서 발생했다. 미국 행정부에 대한 신뢰 약화가 투자자금 순유출을 고착화한다면 달러인덱스에 대한 구조적인 하락 압력이 커지겠으나 당장은 아니다. 특히 하반기의 연준 독립성 지탱 여부가 중요하겠다.

둘째, 일본 와타나베 부인 사례처럼 한국 또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투자수지 변동에 좌우되는 경향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당장의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 문제가 자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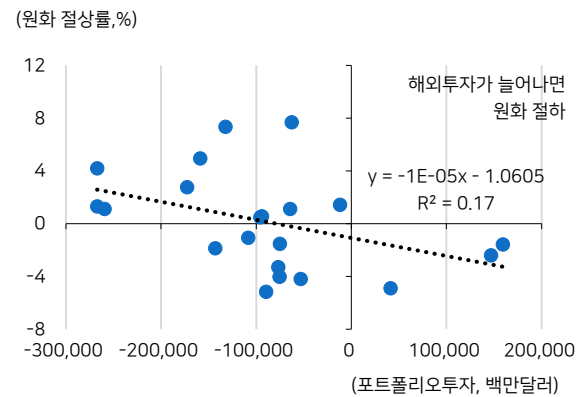
게다가 지금처럼 매크로 불확실성이 심한 시기에는 환율 방향성 베팅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 대한 신뢰 훼손이 미국 투자 매력도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하반기 달러/원은 1,340원 ~ 1,420원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19 한국 경상수지 vs. 원화 절상률



주: 2020년 이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한국 포트폴리오투자 vs. 원화 절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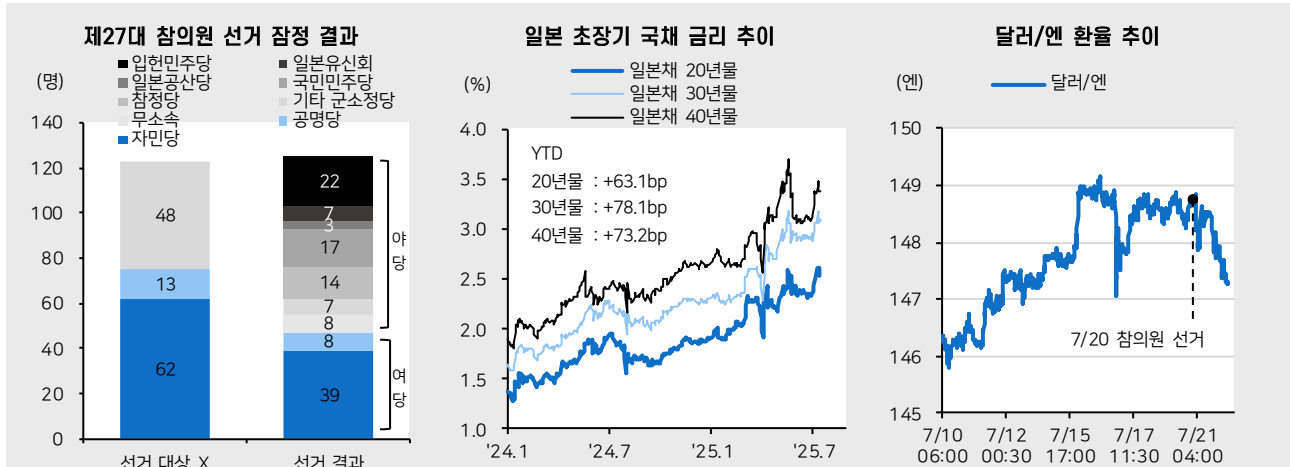


주: 2020년 이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오늘의 차트

박민서 연구원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초장기 국채 금리



자료: 언론 종합,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일본 참의원 선거, 여당 참패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현재 집권당인 자민당이 패배하며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되었다. 자민당이 39석, 공명당(연립여당)이 8석으로 금번 선출 대상인 125석 중에서 47석을 확보했는데, 기존 75석(62+13)을 합쳐도 총 122석으로 전체 248석의 과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사실 예견된 상황
 이에 초장기물 금리도 상승했음

사실 이번 여당의 실패는 예견된 상황이었다. 쌀 가격을 중심으로 고물가 지속, 관세협상 부진 등으로 이시바 시게루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던 상황에서 지난 달 총선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이 참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소비세 감세 패키지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일본 정부수입에서 소비세가 32.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부상하며 초장기 국채 금리 상승/엔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 직후 되돌림 발생

그러나 실제로 여당의 패배가 확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으로 반응했다. 21일 해양의 날로 휴장하여 국채 금리는 변동이 없었으나, 달러/엔 환율은 147엔 초반까지 하락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 정도면 선방한 수준이라는 인식

그 이유는 의외로 여당이 선방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나, 1)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제1당 지위는 유지됐고, 2)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총리직 유지를 표명했으며, 3) 극우파 참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등 야당 의석은 늘어났지만 복수의 정당으로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재정 우려는 일단락
 → 초장기 금리 안정 가능성

따라서 일본의 재정적자 부담이 심화될 가능성도 낮아졌다. 게다가 현재 쌀 가격 중심 물가상승세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명목GDP 증가 효과에 따라 정부부채/GDP 비율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다. 이는 재정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라는 측면에서 일본 초장기 국채 금리의 안정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칼럼의 재해석

이수정 연구위원

드론 우위 확보 전략 (CSIS)

2023년 8월 발표된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Replicator Initiative)'는 미군의 느린 무기 개발 및 조달 시스템을 혁신하고, 중국의 군사적 물량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니셔티브의 핵심 목표는 2025년 8월까지 저렴하고, 소모 가능하며,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드론(ADA2) 수천 대를 다양한 영역에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25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드론 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다. 국민 안전과 주요 인프라, 군사 시설 등에 대한 드론의 위협에 대응하며 미국 내 드론 생산 확대와 미국 드론의 수출 장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2026 회계연도 예산 요청안에서 자율 시스템에 약 134억 달러, 대(對)무인항공체계에 약 31억 달러 예산을 배정할 전망이다. 드론 밸류체인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plicator: 복제하는 것 또는 복제기, 저비용 드론의 대량 생산 및 신속한 배치 상징

러-우 전쟁: 현대전 패러다임 전환

러-우 전쟁, 현대전 패러다임 전환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 더 이상 값비싼 소수의 하드웨어 플랫폼이 아닌, 저렴하고 소모 가능하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수의 시스템이 전장의 주역이 되는 시대를 열었다.

상업용 기술, 불리한 비용 교환비
강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FPV(First-Person View, 1인칭 시점) 드론과 같은 상업용 기술이 압도적 수적 우위를 가진 적을 상대로 **불리한 비용 교환비**를 강요하며 전략적 효과를 발휘한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입증한다.

우크라이나의 성공 사례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며 수십 년에 걸쳐 신기술을 개발하던 모델에서, 이제는 민간 부문이 자체적으로 초기 연구개발(R&D) 리스크를 부담하여 최소기능제품을 만들면 정부는 '고객'으로서 성공적인 제품을 신속하게 대규모로 구매하는 모델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1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횟수



자료: BBC News

그림2 FPV(First-Person View, 1인칭 시점) 드론



자료: Atlantic Council

우크라이나 혁신의 3가지 축

① 예산 프로세스: 이원화와 분권화

우크라이나 혁신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경직된 국방 시스템을 개혁하려 시도한 것이 아닌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하는 새로운 길을 만든 것에 있다. 즉, 상업 기술 조달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과 획득(Acquisition)시스템을 병렬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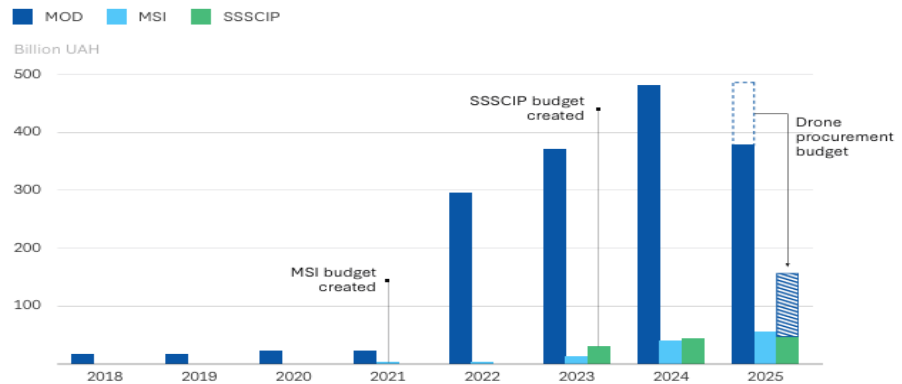
예산 이원화: SSSCIP 신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국방부(MOD) 조달 예산과 완전히 분리된 예산을 신설하여 국가특수통신정보보호국(SSSCIP)의 권한 하에 두었다. 2025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무기 조달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650억 흐리우냐(UAH, 약 5조 5,380억 원)가 새로운 상업 혁신 기술 트랙에 배정되었다.

예산 분권화: 조달 권한 최전선 부대까지 위임

나아가 조달 권한을 700개의 최전선 부대까지 위임하여, 복잡한 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의 지휘관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승인된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림3 우크라이나 3대 핵심 국방 예산



자료: CSIS

② 상향식 모델

우크라이나는 요구사항 중심의 획득 절차를 폐기하고, 전장의 최종 사용자가 직면한 운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상향식 모델을 채택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초기 R&D 리스크를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무기 획득 기간을 평균 18개월로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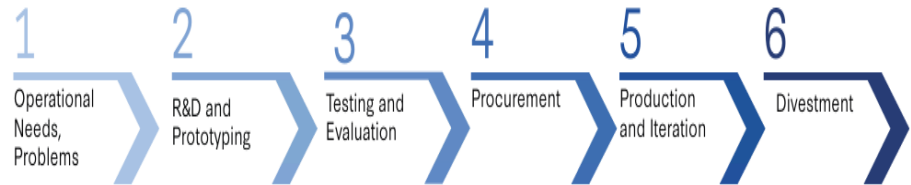
민간 기업들은 자체 자금으로 기술 준비 수준(TRL) 6-7 단계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군은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테스트와 평가에 개입한다. 또한, 최종 사용자인 최전선 병사들이 테스트 및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술의 실전 유용성을 검증한다. 이러한 프로세스 혁신은 평균 11년에 달하던 무기 획득 기간을 평균 18개월, 소형 시스템의 경우 6개월까지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③ 디지털 플랫폼 기반 생태계 조성

우크라이나는 전장과 개발자, 그리고 정부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속한 협업 생태계를 조성했다. Brave I 플랫폼은 군의 요구사항을 산업계에 전달하며, DOT-Chain은 군 부대가 직접 무기를 주문할 수 있는 분산형 온라인 시장 기능을 수행한다. Army+ 앱은 장비 성능에 대한 현장의 피드백을 수집하는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는 기존의 서류 기반 행정 절차를 대체하여 문제 식별, 조달, 테스트, 피드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군과 민간의 실시간 협업을 가능하게 했다.

그림4 우크라이나 민군 협력 국방역량 개발 사이클



자료: CSIS

미 국방부에서 포착되는 변화의 움직임

중국의 군사적 물량(mass) 우위에 대응해야 하는 전략적 필요성, 러-우 전쟁에서 확인된 저비용 상업 기술의 효율성.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미 국방부의 변화를 재촉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①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Replicator Initiative)

2023년 8월, 미 국방부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 발표

2023년 8월 발표된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는 미군의 느린 무기 개발 및 조달 시스템을 혁신하고, 중국의 군사적 물량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니셔티브의 핵심 목표는 2025년 8월까지 저렴하고, 소모 가능하며,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시스템(ADA2) 수천 대를 다양한 영역에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드론 우위 확보를 위한 레플리케이터의 구체적인 전략은 (1) 드론스웸 개념 구현, (2) 국방혁신부대(Defense Innovation Unit, DIU)를 중심으로 관료주의적 절차 간소화, (3) AI를 기반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 시스템, (4) 소모성 자산 개념의 드론 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나아가, 2024년 9월 국방부는 레플리케이터 2에 대한 지침을 발표해 저비용 상업 드론이 전략 자산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C-sUAS(Counter-small Unmanned Aerial Systems, 대(對)무인항공체계)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림5 Replicator 2 지침에 대한 메모 (2024.9.27)



SECRETARY OF DEFENSE
1000 DEFENSE PENTAGON
WASHINGTON, DC 20301-1000

SEP 27 2024

MEMORANDUM FOR SENIOR PENTAGON LEADERSHIP
COMMANDERS OF THE COMBATANT COMMANDS
DEFENSE AGENCY AND DOD FIELD ACTIVITY DIRECTORS

SUBJECT: **Replicator 2 Direction and Execution**

The Department of Defense (DoD) has learned important lessons from its Replicator effort. Foremost is that concentrated and sustained senior leader attention — across the breadth of policy, concept, and system development, integration, and sustainment efforts — can get needed capability into the hands of our warfighters faster. In Replicator 1, we focused our aim on attributable autonomy, and we are on track with the Initiative's fielding plan for next summer. This work has, in turn, helped ignite our efforts to scale autonomous systems across the force more gener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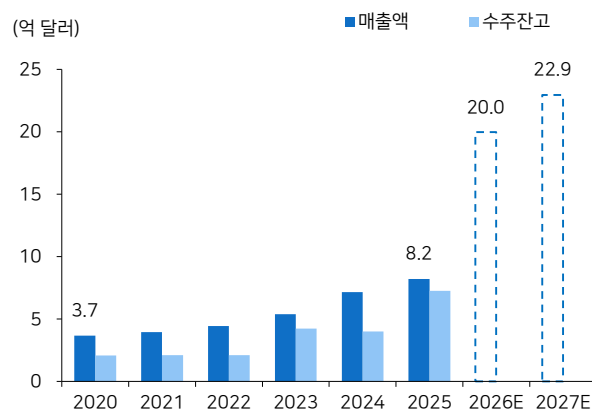
자료: U.S. Department of Defense

표1 Replicator 프로그램

지표	레거시 획득 경로(MDAP/MTA)	Replicator 프로그램
기술 초점	대규모 하드웨어 플랫폼(전투기, 잠수함 등)	소프트웨어 중심, AI, 자율시스템
개발 주기	10-20년	18-24개월
주요 공급업체	소수의 전통적 방산 대기업	비전통적 기술 기업, 스타트업
리스크 모델	정부가 초기 R&D 리스크 부담	민간이 초기 R&D 리스크 부담, 정부는 후기 구매
핵심 성공 요인	장기적 프로그램 관리, 정치적 로비	신속한 제품 개발, 기술적 우위, 확장성
자산 개념	영속적 플랫폼(Enduring Platform)	소모성 자산(Attributable As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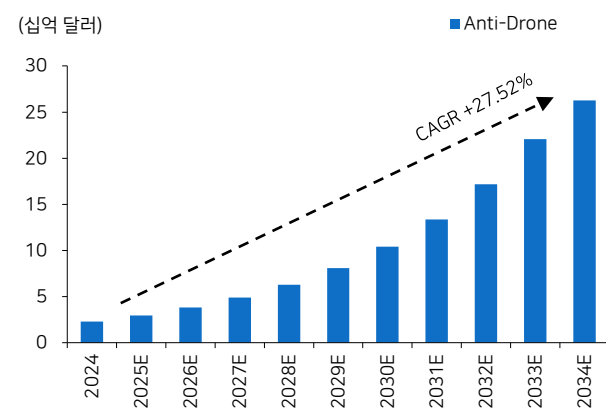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에어로바이런먼트(AVAV) 매출액 및 수주잔고 추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안티-드론 시장 규모 전망



자료: Precedence Research,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② 트럼프 대통령, 드론 우위 확보 행정명령 서명(2025.06.06)

트럼프 대통령, 미국 드론 산업
지원 행정명령 3건 서명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드론 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다. '미국 영공 주권 회복', '미국 드론 지배력 강화' 그리고 '초음속 항공의 세계적 선도'로 국민 안전과 주요 인프라, 군사 시설 등에 대한 드론의 위협에 대응하며 미국 내 드론 생산 확대와 미국 드론의 수출 장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드론 우위 확보(UNLEASHING AMERICAN DRONE DOMINANCE) 행정명령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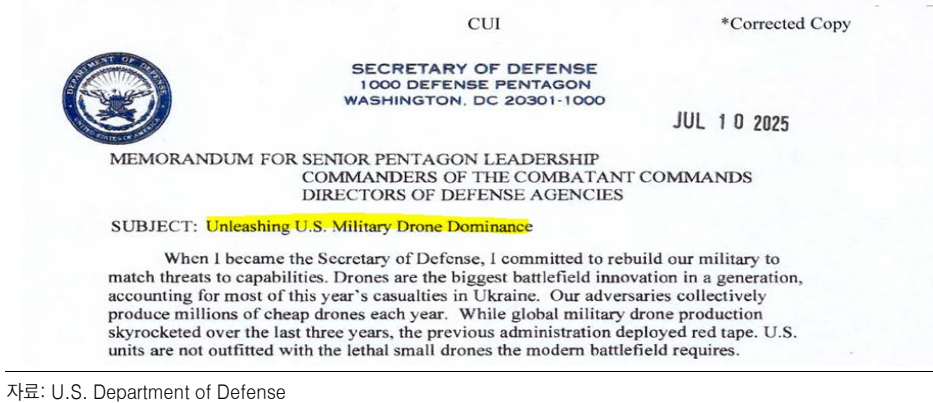
제목	주요 내용 요약
목적	UAS(드론) 및 eVTOL 기술의 상용화 가속 국가 공역(NAS) 통합, 국내 생산 확대, 수출 촉진을 통해 드론 생태계 강화
정책	위험 기반 신속 규제(rulemaking)로 UAS 통합 가속 산업 주도 혁신 · 인허가 간소화로 대규모 상용화 지원 국내 공급망 강화 및 미국산 UAS 수출 촉진
상업용 UAS 운용 확대	30일 내 BVLOS(Beyond Visual Line Of Sight) 예비 규칙 공표 · 240일 내 최종 확정 성능 · 안전 지표 수립(30일), 규제 장벽 보고(180일) 120일 내 AI 심사 도구 - 도입 미 공역 · 해양구역 국제비행 규제 예외 방안 모색
NAS 통합 로드맵	240일 내 민간 UAS 통합 로드맵 공표 FAA 테스트 레인지 활용 확대(데이터 확보 · 규제 · 운용 공백 식별)
eVTOL 시범사업	eVTOL 통합 시범사업(eIPP) 설립 90일 내 RFP, 180일 내 5개 이상 사업 선정 · 운용 개시 연례 · 최종 보고서 제출 및 3년간 운영 후 종료(연장 가능) 결과로 eVTOL 규제 · 이니셔티브 수립 지원
산업 기반 강화	법 허용 범위 내 미국산 UAS 우선 조달 30일 내 '위험 외국기업 목록' 발표 90일 내 상무부 주도로 드론 공급망 외국 통제 차단 조치
수출 촉진	90일 내 수출통제 규정 개정 검토(적대국 제외 미국산 UAS 신속 수출 지원) 미 상무부 수출촉진 우선 분야 지정 · 범부처 협력 국방부 · 수출입은행 등 금융 · 보험 · 기술 지원 수단 총동원
군용 드론 지원	DIU '블루 UAS 리스트' 확대 · 월별 갱신 FY2020 NDAA §848 준수 드론 우선 조달 90일 내 군사훈련용 공역 접근성 확충 · 전자파 스펙트럼 보고 UAS 대체 가능 프로그램 식별 보고

자료: The White Hou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피트 헉세스 미 국방부 장관, 드론
신속 배치 명령

피트 헉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군 드론 전력 개편 정책을 발표했다. 소형 드론의 배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을 내구재가 아닌 탄약과 유사한 소모품으로 지정했으며, 복잡한 승인 시스템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각 군 지휘관은 별도의 상위 승인 없이 드론을 직접 구매하고 현장 내 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명령에는 (1) 미국 드론 제조 기반 강화, (2) 저비용 드론 전투 부대에 배치 (3)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투 훈련 진행이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는 2026 회계연도 예산 요청안에서 자율 시스템에 약 134억 달러, 대(對)무인항공체계에 약 31억 달러 예산을 배정할 전망이다.

그림8 드론 우위 확보에 대한 메모(2025.7.10)



원문: *Unleashing U.S. Military Drone Dominance: What the United States Can Learn from Ukraine (CSIS)*